2018년 3월 24일 경찰직
【국어】 기출 문제 해설

01.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②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③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④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② 소리의 장단은 모음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절 단위에서 실현된다. '음운(音韻)'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소리마디'란 최소 발음의 단위인 '음절(音節)'을 말한다.
국어에서는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를 달리함으로써 단어의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모음은 발음의 지속 시간의 길이로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모음(短母音)은 모음 소리의 지속 시간이 짧은 모음을 말한다. 반대로 모음 소리의 지속 시간이 긴 것은 장모음(長母音)이라고 한다.
① 비분절 음운은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데 관여하는 음소(音素) 이외의 운율적 특징. 소리의 고저(높낮이), 장단(길이), 강세(세기) 등이며, '비분절운소(韻素)'라 한다. 참고로, 분절 음운은 마디를 나눌 수 있는 것,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인 자음과 모음을 '분절음소(音素)'라 한다.
③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나 억양처럼 의미 변별의 기능은 있지만,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④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래 장음으로 발음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된다. 예를 들어 긴소리로 발음되는 '말:[言]'이 '존대'와 결합하여 '존댓말'이 되면 '말:[言]'은 짧은 소리로 발음한다.

>>정답 ②

02.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u>당신</u>은 누구시오?
㉡ <u>당신</u>,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 뭐? <u>당신</u>? 누구한테 당신이야!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u>당신</u>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① ㉠에서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② ㉡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③ ㉢에서 '당신'은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④ ㉣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해설

④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당신'은 3인칭 대명사이다.
① 청자(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서, 하오체에 쓴다.
②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③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정답 ④

03.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처럼 구(句)로 보아야 한다.
② 접사와 어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合成語)라 한다.
③ '앞뒤, 손수건, 춘추(春秋)'와 같이 어근이 대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등 합성어라 한다.
④ '덮밥, 부슬비, 높푸르다'와 같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해설

④ 비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문장구성방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를 말한다. '덮밥'은 덮(어간)+밥(명사)의 구성으로서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구성, '부슬비'는 '부슬(부사)+비(명사)'로 수식관계가 어긋난 구성, '높푸르다'는 '높(어간)+푸르다(용언)'의 구성으로서, 연결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① 구(句)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은 합성어로서, 한 단어이다.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은 합성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하고,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것이므로 구(句)에 해당한다.
②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③ 두 단어나 어근이 병렬 관계, 곧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되는 합성어를 대등합성어라 한다. '앞뒤'는 '앞과 뒤'의 병렬적 의미이므로 대등합성어이다. 그러나 '손수건'은 두 단어나 어근이 유속 관계, 곧 서로 주종 관계로 연결되는 유속(종속) 합성어이고, '춘추(春秋)'는 '봄과 가을'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나이의 높임말로서, 두 단어나 어근이 융합 관계, 곧 각각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융합합성어이다.

>>정답 ④

04. 다음 밑줄 친 성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영선이가 <u>참</u> 아름답다.
㉡ <u>과연</u> 영선이는 똑똑하구나.
㉢ 영선이는 <u>엄마와</u> 닮았다.
㉣ <u>그러나</u> 영선이는 역경을 이겨냈다.

①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②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③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어이다.

④ ㉠부터 ㉣까지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부사어이다.

해설

④ ㉠의 '참'은 '아름답다'를, ㉡의 '과연'은 '똑똑하구나'를, ㉢의 '엄마와'는 '닮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의 '그러나'는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므로, 수식언인 부사이고, 문장성분은 부사어이다.

① 성분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말한다.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과연, 설마, 제발, 확실히, 의외로'와 같은 부사가 문장 부사어이다.
㉠의 '참'은 서술어 '아름답다'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그러나 ㉡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② ㉡의 '과연'은 문장 부사어이다. 그러나 ㉢의 '엄마와'는 '체언+부사격조사'의 구성으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③ ㉢의 '엄마와'는 성분 부사어이다. ㉣의 '그러나'와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등은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므로, '접속 부사'이다.

>>정답 ④

05.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의 논문이 유명 학회지에 개재(介在)되었다.

② 경치가 좋은 곳을 관광지로 계발(啓發)하려 한다.

③ 무더위로 최대 전력 수요 경신(更新)이 계속되고 있다.

④ 그 회사는 어음을 결재(決裁)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다.

해설

③ '경신(更新)'은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나 최저치를 깨뜨림을 뜻하며, 적절하게 쓰였다. 참고로, '갱신(更新)'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 갱신/비자 갱신/면허 갱신' 등에 쓰인다.

① '개재(介在)'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끼어듦, 끼여 있음을 뜻한다. 문맥상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을 뜻하는 '게재(揭載)'가 적절하다.

②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는 것은 '개발(開發)'이다. '계발(啓發)'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④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것은 '결제(決濟)'이다. '결재(決裁)'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정답 ③

06.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 아버지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팔았다.
> ㉢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 철이와 영선이는 결혼했다.

① ㉠은 '용감한'이 '그'를 꾸미는지, '그의 아버지'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② ㉡은 '어머니가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가 소유한 초상화'인지 불분명하다.

③ ㉢은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불분명하다.

④ ㉣은 '철이'가 '영선'이와 결혼했다는 의미로 명확한 의미의 문장이다.

해설

④ 문장에서 조사 '와'를 부사격 조사로 판단하면 '철이와 영선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와'를 대등접속조사로 판단하면 이 문장은 '철이는 결혼했다'라는 문장과 '영선이는 결혼했다'라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 따라서 중의적 표현이다.

① 수식어에 의한 중의적 표현이다.
관형어 '용감한'은 '그'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의 아버지'를 수식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중의성을 없애려면 쉼표를 이용하거나, 문장의 어순을 바꾸면 된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그'가 용감하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아버지'가 용감하다)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아버지'가 용감하다)

②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으로 인한 중의적 표현이다.

③ '보고 싶은'의 주체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정답 ④

07. 다음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희망의√불씨가√꺼져간다.

② 한국대학교√사범대학√최치원√교수

③ 이천십팔√년√삼√월√이십사√일√제일√차√공무원√시험

④ 제발√여기에서만이라도√집에서√처럼√못√되게√굴지√않았으면√좋겠다.

해설

③ 이천십팔√년√삼√월√이십사√일√제일√차√공무원√시험
'년, 월, 일'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이다.
따라서 '이천십팔√년(의존명사)√삼√월√이십사√일'이 원칙이고, '이천십팔년√삼월√이십사일'처럼 붙여 쓸 수 있다.
참고로, '일월, …, 십이월'의 달 이름은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써야 한다.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 '제(第)-'가 붙는 경우에 '제-+숫자'는 붙여 쓰고, 그 뒤의 명사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즉 '번',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차(次)'는 앞말과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례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제일√차'가 원칙, '제일차'로 붙여 쓸 수 있다.

①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꺼져√간다'로 쓴다. 다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므로 '꺼져간다'로 쓸 수 있다.

②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따라서 '한국√대학교√사범√대학'이 원칙이고, '한국대학교√사범대학'이 허용에 해당한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따라서 '최치원√교수'처럼 띄어 쓴다.
④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집에서처럼'이 맞다. 또한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는 형용사 '못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정답 ③

08. 다음 중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수캉아지 – 수탕나귀 – 수평아리
② 황소 – 장끼 – 돐(생일)
③ 삵괭이 – 사글세 – 끄나불
④ 깡충깡충 – 오뚝이 – 아지랑이

해설

① 수캉아지, 수탕나귀, 수평아리는 모두 표준어이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고,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는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등이다.
④ '깡충깡충', '오뚝이', '아지랑이'도 모두 표준어이다.
② 황소(○)–장끼(○)–돐(×)
큰 수소를 뜻하는 '황소'와 '수소'는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꿩의 수컷을 뜻하는 '장끼'와 '수꿩'이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생일이 돌아온 횟수를 세는 단위는 '돌'이며, '돐'은 표준어가 아니다.
③ 삵괭이(×)–사글세(○)–끄나불(×)
거센소리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단어로서, '살괭이(고양잇과의 포유류)', '끄나풀'이 표준어이며, '삵괭이', '끄나불'은 표준어가 아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삯월세'가 아닌 '사글세'가 올바른 표현이다.
④ 깡충깡충(○)–오뚝이(○)–아지랑이(○)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이다. 모음조화가 파괴된 '깡충깡충'이 올바른 표기이며, '깡총깡총'은 표준어가 아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이에 따라, '오뚜기'가 아닌 '오뚝이'가 옳다. 이렇게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 단어로, '깔쭉이, 배불뚝이, 살살이, 홀쭉이' 등이 있다.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쬘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을 일컬어, '아지랑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ㅣ'모음 역행동화로 인해 '아지랭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정답 ①, ④

09.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는 너를…." 하고 뒤돌아섰다.
② 그녀의 50세 나이(年歲)에 사랑의 꽃을 피웠다.
③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④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해설

②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 ])를 쓴다. 따라서 '나이[年歲]'로 고쳐야 한다.
①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큰따옴표(" ")를 쓴다. 그리고 할 말을 줄였을 때 줄임표(……)를 쓴다. 또한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고,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③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줄표(—)를 쓴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④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를 쓴다. 또한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답 ②

10.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압구정–'Apgujeong'–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속리산–'Songni-san'–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등은 붙임표를 붙여 쓴다.
③ 한복남–'Han Bongnam'–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④ 집현전–'Jipyeonjeon'–'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는다.

해설

①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구정[압꾸정]'의 로마자 표기 'Apgujeong'은 올바른 표기이다.
②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또한 '속리산'은 [송니산]으로 발음하므로 'Songnisan'으로 쓴다.
③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복남'은 [한봉남]으로 발음하지만 표기대로 'Han Boknam' 또는 'Han Bok-nam'으로 쓴다.
④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표기대로 'ㅎ'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집현전[지편전]'의 표기는 'Jiphyeonjeon'이 맞다.

>>정답 ①

[11~12]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6㉠<u>과장</u> 양반춤

말뚝이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u>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u>.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11.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현대 연극의 '막'과 유사하지만 각 '과장'은 독립적이다.
② ㉡: 양반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③ ㉢: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④ ㉣: 말뚝이를 통해 유발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해설

④ ㉣은 반복되는 각 재담을 구분하며, 갈등의 일시적 해소에 해당한다.
① 과장(科場)은 탈놀이에서, 현대극의 막이나 판소리의 마당에 해당하는 말이며, 각 과장의 내용은 독립적으로 전개된다.
② ㉡은 근엄한 양반의 모습이 아닌, 어색한 모습을 통해 양반을 희화화한 부분이다.
③ '양반'의 뜻풀이 즉,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를 통한 양반에 대한 조롱이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민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정답 ④

12.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도 안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면극의 일종이다.
②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의 재담 구조를 보인다.
③ 등장인물은 공연 상황에 따라 대사를 바꾸어 표현하지 못한다.
④ 말뚝이는 무능한 지배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해설

② 각 재담별로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이라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 '봉산 탈춤'은 약 200년 전부터 해서(황해도) 일대의 주요 읍이나 장터인 황주, 봉산, 서흥, 평산 등지에서 성행하다가 황해도 전 지역에 퍼진 민속극이다.
③ 구비 문학의 특성상 공연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을 생략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
④ 말뚝이는 양반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재치 있는 언행을 통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②

[13~14]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德(덕)으란 곰ᄇᆡ예 받줍고
福(복)으란 림ᄇᆡ예 받줍고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놀
㉠나ᄉᆞ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ᄒᆞ논ᄃᆡ
누릿 가온ᄃᆡ 나곤
㉡몸하 ᄒᆞ올로 녈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ㅅ블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ᄉᆡ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ᄒᆞᆫ
아으 滿春(만춘) ㉣ᄃᆞᆯ욋고지여
ᄂᆞᄆᆡ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13.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나중에 오십시오.'라는 뜻이다.
② ㉡: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
③ ㉢: 2월의 세시 풍속인 '연등제'와 관계된다.
④ ㉣: 임의 수려한 외모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해설

㉠의 '나ᄉᆞ라'는 '드리러. 진상(進上)하러'의 뜻이다. 따라서 '나ᄉᆞ라 오소이다'이다는 '드리러(진상하러) 오십시오'이다.
② 정월령으로 정월의 냇물이 얼려 녹으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난 화자는 홀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③ 2월령으로서, 연등절(燃燈節)에 높이 켜 놓은 등불에서 서정적 자아는 만인이 우러러볼 만한 임의 모습을 발견한다.
④ 3월령으로서,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ᄃᆞᆯ욋고지(진달래꽃)'으로 비유하였다.

>>정답 ①

정진국어 **고려속요, '동동'**

1. 해제: 이 노래는 분절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에서 고려가요의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월령체 (月令體)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남녀의 이별을 제재로 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2. 핵심정리
1) 갈래 : 고려 속요
2) 형식 : 전 13연의 달거리(월령체) 노래 (서사+12달)
3) 성격 : 이별의 노래. 민요풍. 송도가(頌禱歌)
4) 짜임 : 서사와 본사인 1월에서 12월까지의 달거리로 구성
5) 주제 : 頌禱(송도), 孤獨(고독), 頌祝(송축), 哀戀(애련), 祈願(기원), 戀慕(연모), 寂寞(적막), 悲戀(비련) 등
6) 출전 : <악학궤범> 권 5
3. 현대어 해석(제시 부분)
덕은 뒤에(뒷잔에) 바치옵고 복은 앞에(앞잔에) 비치옵고,
덕이라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송도頌禱 – 덕과 복을 빎)
정월의 시냇물이 아아 얼려 녹으려 하면서 봄이 다가오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고독 – 홀로 사는 외로움)
이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놓은 연등 등불과 같은 임이여,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송축 – 빼어난 임의 모습)
삼월이 지나며 피어난 아아 늦봄의 잔달래꽃 같은 임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도다.
(송축 – 아름다운 임의 모습)

14.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월령체 형식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②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장가사』에 전한다.
③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켰다.
④ 1연은 서사(序詞)로서 송축(頌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해설

'동동'은 고려 시대에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된 듯하다. 가사는 한글로 <악학궤범>에 '아박(牙拍)'이란 항목에 노랫말이 그 춤의 형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려 있다.
① 작자·연대 미상의 고려속요이며,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달거리(월령체) 노래로 임을 그리워하는 연가풍의 작품이다.
③ 이 노래는 달이 바뀜에 따라 연으로 구분되고, 한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나타난다.
④ 전 13연으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제1연만은 임을 송도(頌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②

1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u>소주(燒酒)</u>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u>흰 당나귀</u> 타고
㉢<u>산골</u>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u>세상</u>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① ㉠: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이다.
② ㉡: '눈', '나타샤' 등과 함께 현실적 괴로움을 상징한다.
③ ㉢: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이상적 공간이다.
④ ㉣: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해설

'나타샤'는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의 여주인공이지만, 여기서는 가난한 나와 대비되는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눈이 푹푹 나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눈이 주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흰색의 색채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여 작품 전반적으로 순수한 이미지를 조성해 주고 있다. 또한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에서는 눈의 흰색에 더해진 흰 당나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눈', '나타샤', '흰 당나귀' 등이 현실적 괴로움을 상징한다는 ②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다.
① '소주'는 현실의 시련과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이다.
③ '산골'은 세상을 떠난 깨끗한 공간이며, '나'와 '나타샤'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④ '세상'은 '산골'과 대비되어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적 공간이다.

>>정답 ②

정진국어 백석, '나타샤와 흰 당나귀

1. 작품 해제: 이 시는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나타샤'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기대와 실현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순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세상을 떠나 자신만의 순수세계로 표상되는 '산골'로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있다.
2. 핵심정리
1) 성격: 이국적, 환상적
2) 구성
1연: 눈 내리는 밤
2연: 나타샤와 산골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
3연: 현실을 능동적으로 버리고자 함
4연: 상황에 대한 '나'의 순결한 생각
3) 주제
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현실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환상
② 사랑에의 환상적인 꿈, 현실을 초월한 이상과 사랑에 대한 소망
③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순수 세계에 대한 소망
4) 특징
① 순백의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함
②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③ 유사한 문장을 변형,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적 깊이를 심화함
④ 우수어린 정조, 환상적 몽환적 분위기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뒈져 버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돌려다 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네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未久)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뒈져라! 움도 싹도 없이 스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① 1922년 『신생활』에 발표될 당시 작품 제목은 「묘지(墓地)」였다.
② 주인공이 도쿄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여로형 소설이다.
③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현실 개선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해설

③ 제시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작품 내부의 서술자, 곧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다.
① 이 작품은 <신생활(新生活)> 잡지에 1922년 7월부터 <묘지(墓地)>라는 제목으로 2회까지 연재되다가 3회분은 삭제당한 채 이로 인해 잡지가 폐간되자, 1924년 <시대일보(時代日報)>로 옮겨져 <만세 전>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완결되었다.
② 작품의 전체적 구조는 동경 유학생 '나'(이인화)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여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다시 동경으로 떠나기까지의 여정에서 보고 느낀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의 진행은 '동경→부산→김천→영동→대전→서울'의 여로의 순서(순차적 시간 진행)로 되어 있다.
④ 주인공이 암울한 현실을 '묘지'와 같이 인식한 것은 좋으나, 이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정신적 고뇌도 보이지 않고 동경으로 떠남으로써 현실 도피적 결말을 가져온 것은 이 작품의 한계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정답 ③

정진국어 염상섭, '만세전(萬歲前)'

1.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조선의 현실에 관심이 없던 주인공이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 한 지식인이 민족의 현실에 눈떠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2. 작품 정리
1) 갈래: 사실주의 소설, 여로형 소설
2)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3)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4) 배경
① 시간 – 1918년 겨울(3·1 운동 직전)
② 공간 – 동경과 서울
5)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6) 출전: 신생활(1922년)
원제는 '묘지(墓地)'로, 19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생활

新生活≫에 연재되다가 잡지의 폐간과 함께 3회 연재로 중단되었다. 1924년 4월 6일부터 ≪시대일보 時代日報≫가 창간되면서 제목을 '만세전'으로 바꾸어 개재하였다.

3. '만세전'의 여로(旅路)형 구조

이 작품은 주인공이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여로가 중심이 되어 있다. '동경 → 동경서 신호(神戶) → 하관(下關)에서 배를 탐 → 연락선으로 부산 도착 → 부산에서 술집을 기웃거림 → 부산에서 출발, 김천을 거쳐 서울 도착 → 서울집의 분위기 → 서울에서 배회 → 아내의 죽음, 동경으로 출발' 이라는 원점회귀(原點回歸)의 구조로 되어 있다.

3. 작품 이해

이 작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식민지 조선의 총체적 실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적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그려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실주의 작가 정신이 매우 투철하게 발휘되어 있다.

둘째는 주인공 이인화의 의식 구조를 통해 당시의 민족적 현실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의식 구조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암담한 현실을 이해하고 울분을 느끼지만,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할 뿐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7~18]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17. 이 작품의 주제를 한자 성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興盡悲來　② 捲土重來
③ 愚公移山　④ 渴而穿井

해설

행랑채 세 칸 가운데 미리 손보아 두었던 한 칸은 비용이 덜 들었으나,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두었던 두 칸은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뜻하는 ④의 '갈이천정(渴而穿井)이 적절하다.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망양보뢰(亡羊補牢)'도 '이옥설'과 통한다.

① 흥진비래(興盡悲來 : 興 일 흥/盡 다할 진/悲 슬플 비/來 올 래)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 세상일이 순환됨을 가리키는 말. ㉡ 세상의 온갖 일에 너무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뜻. ㉢ 흥망과 성쇠가 엇바뀜을 일컫는 말. [상]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권토중래(捲土重來 : 捲 말 권/土 흙 토/重 무거울 중/來 올 래)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 패한 자가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

③ 우공이산(愚公移山: 愚 어리석을 우/公 공평할 공/移 옮길 이/山 메 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 [유] 마부위침(磨斧爲針)

④ 갈이천정(渴而穿井 : 渴 목마를 갈/而 말 이을 이/穿 뚫을 천/井 우물 정)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이 없음. 또는 자기가 급해야 서둘러서 일을 함.

>>정답 ④

정진국어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1. 작품 해제: 이규보의 '이옥설' 이 작품은 인간의 삶의 이치와 올바른 정치의 원리를 집을 고친 체험을 예로 들어 깨우쳐 주고 있는 한문 수필로,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평범함 생활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삶아 삶의 자세와 방법에까지 그 사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작자가 강조하는 바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핵심 정리
1) 갈래: 한문 수필, 설(說)
2) 성격: 교훈적, 경험적, 유추적
3) 주제: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4) 특징
① '사실+의견'의 구성 방식을 취함
② 유추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함

18.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모두 적절한 것은?

	㉠	㉡	㉢
①	敗亡	政事	改革
②	敗亡	正使	開革
③	敗忙	政事	改革
④	敗忙	正使	開革

해설

㉠ 패망(敗亡: 敗 패할 패/亡 망할 망) 싸움에 져서 망함.
㉡ 정사(政事: 政 정사 정/事 일 사)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 개혁(改革: 改 고칠 개/革 가죽 혁)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정사(正使: 正 바를 정/使 하여금(부릴) 사) 조선시대 조선 조정

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는 사행의 우두머리. 상사(上使)라고도 한다.
▶개혁(開革: 開 열 개/革 가죽 혁): 사전에 없는 단어
▶패망(敗忙: 敗 패할 패/忙 바쁠 망): 사전에 없는 단어
>>정답 ①

[19~20]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驚惶)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香爐)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낱 염주(念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道場)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酆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必然) 사부가 나의 염려(念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情欲)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김만중, '구운몽'-

19. 이 작품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ᄃᆞ냐.
이시랴 ᄒᆞ더면 가랴마ᄂᆞᆫ 제 구ᄐᆞ여
보내고 그리ᄂᆞᆫ 情(정)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

② 五百年(오백 년) 도읍지를 匹馬(필마)로 도라드니,
山川(산천)은 依舊(의구)ᄒᆞ되 人傑(인걸)은 간 ᄃᆡ 업다.
어즈버 太平烟月(태평 연월)이 ᄭᅮᆷ이런가 ᄒᆞ노라.

③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 ᄒᆞ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ᄒᆞᄂᆞᆫ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짜헤 낫ᄃᆞ니.

④ 三冬(삼동)에 뵈옷 닙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ᄭᅵᆫ 볏뉘도 쬔적이 업건마ᄂᆞᆫ,
西山(서산)에 ᄒᆡ지다 ᄒᆞ니 눈물겨워 ᄒᆞ노라.

해설

제시 작품은 김만중의 '구운몽'으로서, 성진과 팔선녀 아홉 사람이 속세의 부귀영화를 갈망하다가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허망함을 느끼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작품은 ②번이다. 길재의 '회고가'로서, 고려의 옛 도읍지에 들러 인간 세상의 무상을 탄식한 회고의 시조로, 나라는 망하고 사람은 없어졌지만, 자연은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고려 유신으로서의 망국의 한을 나타낸 작품이다.
① 황진이의 연정가로서, 임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③ 성삼문의 '절의가'이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한 작가가 자신의 위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절의가의 대표작이다. 은나라의 충신 백이,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조식의 작품으로, 벼슬을 하지 않고 산중에서 은거하여 군은(君恩)을 입은 바 없지마는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마음을 적은 시조이다
>>정답 ②

정진국어 김만중, '구운몽'

1. 작품 해제: 작가가 어머니 윤씨를 위해 지은 국문 소설로,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성진과 팔선녀가 꿈속에서 인간 세상을 경험하고 부귀영화의 허망함을 깨달은 뒤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불교 사상을 담고 있다. '구운몽'이라는 제목은 명의 등장인물 [九] 이 인생은 구름 [雲] 과 같이 덧없다는 것을 꿈 [夢] 을 통해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뜻한다.
2. 핵심 정리
1) 갈래: 고전 소설, 국문 소설, 양반 소설, 염정(艶情)소설, 전기(傳奇)소설, 몽자류(夢字類) 소설, 양반소설, 적강(謫降)소설, 영웅(英雄)소설, 편력(遍歷)소설,(한문소설도 있음)
2) 배경(배경 사상)
① 불교: 이 글에서 핵심적 주제를 이루는 사상으로 성진의 삶을 통해 드러남
② 유교: 입신양명, 부귀공명 등 당시 양반의 이상적인 인생관으로, 소유의 삶을 통해 드러남
③ 도교: 용왕, 위부인과 팔선녀 등에서 신선 사상이 드러남
3) 주제: 인생무상(人生無常)의 자각을 통한 불교에의 귀의(歸依)
4) 배경
① 시간적: 중국 당나라 때
② 공간적: 중국 남악 형산의 연화봉과 중국 일대(꿈)
5) 근원설화: 조신설화
6) 아류작: 옥루몽(玉樓夢), 옥련몽(玉蓮夢)
7) 의의
① 양반 소설의 대표작
② 몽자류(夢字類) 소설의 효시
③ 조신설화 → 구운몽 → <옥루몽(玉樓夢)>, <옥련몽(玉蓮夢)>→ 이광수 <꿈>, 최인훈 <구운몽>
8) 표현상의 특징: 환몽구조
'꿈을 꾸기 전(현실) → 꿈(비현실) → 꿈을 꾼 뒤(현실)'라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구조는 우리나라 고전소설 가운데 흔히 '몽자류 소설' 또는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불리는 소설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20.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국민 문학론'과 관련된 몽자류 소설이다.
②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 소설이다.
③ 조신 설화가 이 소설의 근원 설화이다.
④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시대이다.

해설

④ 시대적 배경은 당나라 때, 공간적 배경은 중국 남악 형산의 연

화봉과 중국 일대이다.

① 김만중은 '조선 사람은 조선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국민문학론을 제창하였고, 본인의 국민문학론 사상에 따라 '구운몽'은 한글로 쓰인 국문소설이다.

② 이 작품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현실과 꿈이 교차하고 있는데, 현실의 공간이 천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꿈의 공간이 지상 세계로 설정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실의 공간으로 설정된 천상은 불교가 지배하는 곳이고, 꿈의 공간인 지상 세계는 유교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야기는 '현실(천상) – 꿈(지상) – 현실(천상)'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 의식 역시'불교 – 유교 – 불교'의 흐름으로 변화를 보인다.

③ '조신설화'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인 인생의 허무를 주제로 한 몽자류 소설의 연원이 되는 설화로, '구운몽'의 근원설화이다.

>>정답 ④

☞ **受驗生 여러분의 合格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김정진 선생 제공-